

해남군,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 지속 강화

해남군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6·25전쟁 제72주년 기념식 등을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해남군은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꾸준히 확대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을 확대해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특별위로금이 신설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총 3회에 걸쳐 1인당 10만원씩 연 30만원이 지급된다. 수혜자는 관내 1,43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전라남도 내 거주 전몰군경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매월 2만원의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참

전유공자에게는 작년보다 1만원이 증액 된 매월 3만원의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을 한다.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보훈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중 신청하면 되고, 1월 이후 신청자들도 1월분 수당부터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보훈수당은 군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보훈예우수당으로 본인 월 8만원, 유족 월5만원, 참전명예수당으로 본인 월 8만원, 유족 월 5만원의 수당을 균비로 지급해 오고 있다.

군은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데 이어 보훈회관 신축을 민선 7기 군정중점과제로 추진, 지난해 준공·이전을 완료하면서 해남군내 10개 보훈단체가 28년만에 한자리에 자리잡아 5천여 보훈가족의 편의 공간을 확보했다. /윤규진 기자



해남군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6·25전쟁 제72주년 기념식 등을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해남군 제공

장흥, 금연·절주 작품 공모

장흥군은 최근 제35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절주 작품 공모전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4행시, 편지쓰기, 포스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흡연과 음주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현했다.

이번 공모전은 총 673건의 응모작 중 외부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70건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향후 수상작들은 작품집을 만들어 각 학교와 경로당,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하는 한편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절주 홍보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금연의 날은 장흥초와 협력해 학생 및 교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리플렛, 홍보볼품 배부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뜻깊은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공모전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술과 담배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고, 작품 수준도 해가 갈수록 향상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정근 기자

보성군,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고지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지원

보성군은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10만3천500원(1인)부터 20만9천500원(4인 이상)까지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지원 대상자 중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 올해 자동 신청되며,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신규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총 1천100가구에 약 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도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문화재 훈증 소득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군민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전적류 등 문화재를 대상으로 훈증 소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훈증소득이란 해충 및 곰팡이, 세균 등 생물 피해에 취약한 문화재를 소득약품으로 살충·살균하고, 문화재 대한 생물학적 피해 예방 및 방지를 통해 안전하게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처리 방식이다.

훈증소득은 전문장비와 전문 인력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소장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문화재를 보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청접수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신청서를 우편이나 전자메일(msh313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 대상은 1인당 최대 50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대상자는 직접 고흥분청문화박물관으로 문화재를 접수하면 된다.

훈증소득은 오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을 마치면 문화재 보관방법이나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과 함께 소장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료 훈증소득을 통해 문화재가 잘 보관·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석 기자

진도군, 추억모아 '청춘사진관' 운영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옛 추억을 여행할 수 있는 '청춘사진관'을 운영한다. '청춘사진관'은 일반주민과 치매환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분위기 조성고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를 위해 확장시설을 추억하며 옛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관이다.

신청은 월 1회, 5명 이하 부부가족·친구들이 한팀을 이뤄 신청하면 된다.

청춘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은 어르신은 "오래 살다보니 이런 날도 있다"며 "내 인생에서 다시 교복을 입을 수 있었던 행복한 하루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

이번 청춘사진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청춘시절을 회상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통을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춘사진관 관련 문의는 진도군 보건소를 방문 또는 진도군 치매안심센터(061-540-6962)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일 기자

완도, 어린 대하 바다에 방류

완도군은 최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과 함께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 대하 250만 마리를 완도읍 정도리와 고금면 농산리 해역에 방류했다.

이날 방류한 어린 대하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지난 5월 전남 고흥, 영광 지역 일대에서 확보한 대하에서 수정란을 받아 1.2cm로 키운 개체이다.

대하는 우리나라 서·남해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분포하는데 멀리 이동하지 않는 정착성 어류로 이번 어린 대하 방류로 새로운 수산 자원 조성고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수산 종자 방류 사업으로 흥해삼 4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박낙영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